

제 33기 결 산 공 고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3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 32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한세에스24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3 (당)기		제 32 (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동자산		583,161,949,215		536,847,880,768
1. 현금및현금성자산	73,115,052,747		43,149,256,644	
2. 단기금융자산	30,100,000,000		61,497,635,089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3,842,266,103		99,449,965,990	
4.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112,135,921,428		117,067,199,375	
5. 당기법인세자산	507,213,000		154,762,521	
6. 재고자산	187,690,674,189		189,833,541,797	
7. 기타유동자산	25,770,821,748		25,695,519,352	
II. 비유동자산		538,157,053,418		336,612,465,414
1. 장기금융자산	3,000,000		30,000,000,000	
2. 장기성기타채권	5,608,206,847		4,597,799,107	
3. 매도가능금융자산	203,078,264,003		80,673,196,643	
4. 관계기업투자	1,313,093,731		1,007,558,564	
5. 유형자산	216,802,884,816		141,946,762,017	
6. 투자부동산	11,927,605,728		11,959,109,807	
7. 무형자산	66,631,517,495		38,254,070,688	
8. 이연법인세자산	11,125,116,661		10,239,820,735	
9. 기타비유동자산	21,667,364,137		17,934,147,853	
자 산 총 계		1,121,319,002,633		873,460,346,182
부 채				
I. 유동부채		549,560,178,053		416,125,825,872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8,126,616,109		90,659,378,821	
2. 단기차입금	350,921,313,358		261,062,780,368	
3. 파생금융부채	3,240,024		33,033,343	
4. 이연수익	25,351,354,364		23,877,189,949	
5. 기타금융부채	21,944,390		21,595,900	
6. 당기법인세부채	17,368,944,271		12,807,899,739	
7. 반품충당부채	5,262,131,890		20,944,719	
8. 기타유동부채	32,504,633,647		27,643,003,033	
II. 비유동부채		125,494,897,578		85,414,257,699
1. 장기성기타채무	5,450,184,746		3,590,384,493	
2. 장기차입금	71,281,060,710		42,485,331,000	
3. 순확정급여부채	44,076,304,121		33,632,438,651	
4. 이연법인세부채	4,687,348,001		5,706,103,555	
부 채 총 계		675,055,075,631		501,540,083,571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15,433,606,017		182,111,135,264
1. 자본금	20,000,000,000		20,000,000,000	
2. 기타불입자본	15,724,894,930		15,860,123,604	
3. 기타자본구성요소	12,633,372		(3,121,308,314)	
4. 이익잉여금	179,696,077,715		149,372,319,974	
II. 비지배지분		230,830,320,985		189,809,127,347
자 본 총 계		446,263,927,002		371,920,262,61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21,319,002,633		873,460,346,182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03월 30일
한 세 에 스 24 홀 딩 스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동 녕 · 김 기 호

감사의견: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33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 경 태